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Plans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in Gyeongsangnam-do

김 수 경 (Soo-Kyoung Kim)**

송 민 선 (Min Sun Song)***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지역별 독서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독서문화 실태 및 인프라 조사를 통해 도내 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독서문화 인프라 조사 및 경남도민의 독서실태 분석, 경남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성과 분석, 분야별 독서문화진흥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반영, 종합하여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경남 독서문화진흥 거버넌스 구축, ② 경남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및 독서문화진흥 수립·시행 등의 평가 역할 근거 마련, ③ 지역별 특성화된 장서 구성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마련, ④ 경남대표도서관과 경남교육청 간 서비스 대상 및 역할 분담 체계화, ⑤ 경남대표도서관과 18개 시군 지자체 도서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화, ⑥ 경남 및 18개 시군 지자체들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근거 마련 및 관련 법제에 기반한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reading culture in Gyeongsangnam-do and its infrastructure in order to develop a balanced reading culture in each of the 18 counties of Gyeongsangnam-do, and to come up with plans to promote reading culture in the libraries in the province. To this end, six measures were proposed to revitalize reading culture in Gyeongsangnam-do by reflecting and synthesizing the survey of reading culture infrastructure in Gyeongsangnam-do, the analysis of the reading status of residents of Gyeongsangnam-do,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ject in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expert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in each fiel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① Establishment of Gyeongnam Reading Culture Promotion Governance, ② Establishment of Gyeongnam Reading Culture Promotion Committee and preparation of basis for evaluation roles such a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ading culture promotion, ③ Creation of specialized collections and preparation of reading culture programs by region, ④ Service between Gyeongnam Representative Library and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 Systematization of subject and role division, ⑤ Systematization of role division between Gyeongnam representative library and 18 city and county local government libraries, ⑥ Establishment of grounds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of Gyeongnam and 18 city and county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키워드: 경상남도, 독서실태조사, 독서문화인프라, 도서관 이용, 독서문화진흥

Gyeongsangnam-do, Reading Survey, Reading Culture Infrastructure, Library Use, Reading Culture Promotion

* 본 연구는 2022년 경상남도 독서문화 실태조사 및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ksk2012@cmu.ac.kr) (제1저자)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조교수(songery@daelim.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3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6월 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 5-31,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2.005>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전 국민들이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실내 생활이 장기화되고, 교육 기회도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많은 제한을 겪었다. 일상에서의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은 급증한 반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의 서비스와 역할이 제한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줄어들고, 국민 독서율도 감소하였다.

2019년과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도서관 설치수 등 독서문화인프라가 비교적 우수한 데 비해 성인 독서율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1), 또한 경상남도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서부권의 도서관, 서점 및 출판사 등 독서인프라가 동부권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의 독서문화 실태 및 인프라 조사와 함께 경남지역에서 수행된 독서문화진흥 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를 통해 경남 시군의 지역별 독서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의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시군별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경상남도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단위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따른 경상

남도 광역 단위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 분석으로 국내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을 알아보고, 경상남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독서 관련 조례 제정 현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상남도 독서문화 인프라 및 2019년과 2021년에 실시된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민의 독서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전국 대비 경남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정책을 포함한 독서문화인프라,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운영 성과, 경남도민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 제도 및 독서문화 관련 진흥정책을 정리하고, 둘째, 통계분석조사를 통해 경남지역 도서관, 서점, 출판사 등에 대한 독서 인프라를 정리하고, 2019년·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중 경상남도의 주요 독서실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경남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예산, 독서문화진흥 사업 건수, 독서문화 기본계획에 기초한 4개 전략별 추진실적을 비교·검토한다. 넷째, 분야별 독서 관련 전문가 의

건을 수렴함으로써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독서문화진흥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독서문화진흥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기존에 추진된 독서문화진흥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연구,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린이·청소년 등 특정 계층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독서문화진흥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관련해 박인기(2014)는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독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 부실하고 명분만 강조된 현실을 비판하며, 독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독자 환경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독서정책의 주요 과제로 국가 교육과정에 독서의 중요성을 천명해야 하고, 여가활동이 중요해지는 사회 변화에 맞춰 대중문화에 독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대 대중들이 고전 독서를 현대적인 생태에서 수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문화 조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정일권, 조윤경, 채영길(2014)은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한 국내 독서문화진흥 정책과 함께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해외 독서정책을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법, 캠페인으로 유형화 해 국내 정책과 비교·정리하고, 전문가 집단 대상 델파이 조사와 일반인 대상 FGI를 실시해

바람직한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독서를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 확충 및 장서량 확대, 독서문화진흥을 고양할 수 있는 사서의 고용과 활용 등 실질적인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독서를 지식 함양의 도구가 아닌 생활 속 즐거움의 하나로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정수(2015)은 한국 독서정책의 현황을 교육·문화·복지 정책 및 양서출판진흥 정책과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해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① 국민 독서문화를 전담하는 독서 거버넌스 기관 구축, ② 도서관업비에 대한 소득공제, ③ 양서출판 지원, ④ 내실 있는 독서 인프라 지원, ⑤ TV를 위시한 미디어 및 유명인을 활용해 독서문화를 강조함으로써 '독서의 대중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다섯 가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독서문화진흥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연구로, 황금숙 외(2016)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문화관련 사업 평가 연구들을 바탕으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해 독서문화진흥사업 담당자들의 서면 평가와 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 FGI를 통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국민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문화진흥 허브 기능을 강화해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둘째, 독

서문화진흥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 연계를 확대하며, 셋째, 중앙정부 직제 개편을 통해 종합적인 국가 독서정책을 고도화하는 방안의 세 단계로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한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 연구를 수행한 차성중, 강지혜, 배경재(2019)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등의 연구 및 분석 기법을 통해 9개 주요 사업에 대한 실증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사업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사업 지속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의 범주를 구분해 심층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해야 할 독서문화진흥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브랜드화, ② 자율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지원, ③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사업 개발, ④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사업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정 계층의 독서문화 확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는, 황금숙, 김수경, 장지숙(2011)이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관련 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교육계·독서문화 관련 기관·도서관계의 독서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 집단 및 실제 독서문화진흥 사업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한 후,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해 국내 어린이·청소년층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선진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계층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안인자(2012)

는 독서문화진흥 정책과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가지 과제 영역을 바탕으로 국내외 도서관들의 장애인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진흥 정책은 독서환경 조성 및 균등한 독서 기회 제공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장애인 독서생활화 및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이 매우 부족함을 밝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교육, 독서체험,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송정숙, 김수경(2012)은 부산광역시 독서소의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진흥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관 독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 지역의 독서소의계층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병영시설 각각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하게 특정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립과 관련된 최근 연구로, 김보일(2023)은 충청남도 지역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해당 지역의 독서문화 환경 분석과 함께 도민 대상 실태조사와 도서관 직원 대상 조사 결과를 종합해 충청남도를 6대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필요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수행하였던 주요 연구방법들을 활용해 기존에 추진되었던 경상남도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들을 분석하고, 경남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문화 및 독서문화진흥의 개념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편, ‘진흥(振興)’의 사전적 의미는 ‘떨치어 일어남. 또는 떨치어 일으킴’으로, 결국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독서문화진흥’이란 독서활동(문자를 사용해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 활동 및 소산 등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이러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지적 능력 향상, 건전한 정서 함양, 평생 교육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들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독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역, 학교, 직장 등에서도 독서문화진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시설 개선과 함께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 모임을 장려하고, 독서의 달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2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법은 2006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독립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이 대표적이며, 한국의 독서문화정책의 방향과 실천 전략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들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독서문화진흥법」이라면, 광역시·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규는 조례 및 규칙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1년 독서문화진흥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07곳(47%)이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는 광주 및 울산 100%, 서울 84%, 대전 80%, 경기도 6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1b).

2022년 5월 현재(법제처, 2022), 경상남도 및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표 1>과 같이 7건의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진주시의 경우만 도서관 설치와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다. 독서문화진흥 단독 조례가 아닌 진주시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김해시이며 가장 최근 제정한 곳은 양산시이고, 가장 최근에 개정한 곳은 함안군으로 2022년 5월에 일부 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이 정비되기 시작한 시점은 문화부 ‘책의 해’를 지정한 1993년부터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중점사업으로 상정했던 「독서문화진흥법」

〈표 1〉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2. 5. 현재)

자치단체	법규명	주요내용(조항)	제·개정년도(관리부서)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조, 부칙으로 구성 • 목적, 도지사의 책무, 독서교육 기회 제공 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시행규칙 	2017. 09. 28. 제정 (경남대표도서관)
거창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조, 부칙으로 구성 • 목적, 군수의 책무,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사업, 독서문화 활동 지원 	2012. 05. 15. 제정 2021. 11. 25. 전부개정 (인구교육과)
김해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3조, 부칙으로 구성 • 목적, 독서문화진흥 계획수립, 도서관련 행사, 소외계층의 독서문화진흥, 독서문화 활동 지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협의체 설치 및 운영, 회의, 위원의 제척,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등, 시행규칙 	2012. 01. 11. 제정 2016. 12. 26. 전부개정 2020. 07. 24. 일부개정 (인재육성지원과)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조, 부칙 • 목적, 시장의 책무,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 독서의 달 행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행규칙 	2020. 12. 24. 제정 (시립도서관 도서관운영팀)
진주시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장 26조, 부칙 2조로 구성 • 목적, 정의, 시립도서관(명칭 및 소재지, 기능, 열람 및 대출, 이용자 준수사항, 분실 등에 따른 책임, 기증자료, 위탁자료, 자료의 교환·이관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의견청취 등, 현지조사), 독서문화진흥(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도서관 육성 지원, 독서의 달 행사 등), 부칙(위탁운영, 시행규칙) 	2007. 08. 09. 일부개정 2019. 10. 16. 전부개정 (시립도서관)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조(7조, 9조, 10조, 11조 삭제), 부칙 2조로 구성 • 목적,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독서도우미 양성, 독서의 달 운영 등, (창원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행규칙 	2016. 04. 04. 제정 2019. 11. 15. 일부개정 (성산도서관과 송**)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조, 부칙으로 구성 • 목적,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독서시설 기반 마련, 소외계층 등 독서활동 지원, 독서문화진흥사업 등, 독서의 달 운영,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행규칙 	2015. 02. 16. 제정 2022. 05. 13. 일부개정 (도서관담당)

에서 비롯하였다. 하지만 법안 발의 당시 「도서관진흥법」과의 법제 이원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다양한 논의 끝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도서관 관련 법과 독서 관련법이 1994년 통합 제정되었다. 이후 해당법은 2006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각각 분리되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독립 제정되기까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 왔으며,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는 매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계 및 도서관계,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이 활발히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표 2〉 내용 참조)(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4; 2019).

〈표 2〉 제1차~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주요 추진전략 비교

구분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09년-2013년)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국민 독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환경 조성 • 독서의 생활화 사업 추진 • 독서운동 전개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14년-2018년)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독서문화 확산 - 책 읽는 사회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독서문화진흥기반 조성 • 생활 속 독서 문화 정착 •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19년-2023년)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율 '17년 59.9% → '23년 67.4% • 독서동아리 참여율 3% → '23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독서 활성화 •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독서문화진흥법」 제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계획에 기반한 사업 추진의 성과 차이가 크고, 대체로 단기 행사 위주의 독서사업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책의 해’를 계기로 독서문화진흥의 지속성과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책도협)’가 구성되어, 독서생활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시·군·구 단위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양질의 독서·도서관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책도협 회원으로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계는 독서문화 증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써 독자들이 독서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활동을 추진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국가도서관을

비롯해 각 시·도 단위 공공도서관들에서는 연중 상시 진행되는 독서문화진흥 활동,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독서활동, ‘9월 독서의 달’ 등 특정 달에 집중해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한 시적인 기획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확대되어 왔다. 다만, 대부분 도서관들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실적 쌓기 위주 행사나 독서활동에 치중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 및 독서 계층별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대한 사례 개발과 확산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3. 경남 독서문화 인프라 및 독서실태 분석

3.1 경남 독서문화 인프라 현황

3.1.1 도서관 현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23년 1월 기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상남도 도서관 수는 공공 76개관, 작은도서관 461개소, 대학도서관 24개관, 학교도서관 967개소, 장애인도서관 1개관, 교도소도서관 4개소, 전문도서관 2개소로 총 1,535개관(소)이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경남 총 인구수인 3,410,002명을 기준으로 인구 2,221명 당 1개관(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도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표 3〉 참조) 경상남도 내 공공도서관은 2017년 67개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76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창원시(17개관)가 가장 많고, 김해시(9개관), 진주시(8개관), 거제시(7개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장서 보유량의 경우, 인쇄자료 기준으로 2017년 1,587,968점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1,639,920점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다소 감소해 2021년에는 1,635,713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구별 장서량은 2021년 기준 창원시(176,851점) > 김해시(138,804점) > 의령군(106,519점) > 함양군(97,775점) 순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거제시(57,401점)가 가장 적었다. 공공도서관 1관당 방문자수의 경우 2021년 전국 평균 115,016명에 비해 경남은 110,566명으로 다소 낮은 방문자 수를 나타냈으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198,880명) > 양산(154,064명) > 김해(148,371명) > 거제(101,508명) 순이었고 창녕군(32,880명)이 가장 낮은 방문자수를 보였다.

〈표 3〉 경상남도 시군별 공공도서관 관련 주요 통계(2021년 기준)

	도서관 수(개관)	장서량(점)	1관당 방문자 수(명)	1관당 대출도서 수(권)	1관당 봉사인구 수(명)
계	76	1,635,713	110,566	110,957	43,608
창원시	17	176,851	198,880	172,275	60,749
김해시	9	138,804	148,371	175,838	59,741
진주시	8	85,405	69,919	103,561	43,387
거제시	7	57,401	101,508	110,111	34,459
양산시	6	90,288	154,064	142,262	59,121
통영시	5	64,503	47,788	58,807	25,077
밀양시	4	91,304	56,191	33,007	25,881
사천시	3	76,340	52,021	71,699	36,651
창녕군	3	85,459	32,880	31,443	20,043
함안군	2	69,472	46,064	49,893	31,274
고성군	2	70,420	40,049	31,561	25,239
남해군	2	80,972	49,957	24,404	21,133
거창군	2	91,850	69,884	54,897	30,537
산청군	2	65,013	53,959	36,152	17,180
의령군	1	106,519	56,120	44,759	26,322
하동군	1	92,668	84,916	198,089	43,449
함양군	1	97,775	74,764	54,370	38,310
합천군	1	94,669	38,359	42,185	42,935

2021년 기준 경남지역의 1관당 대출도서 수는 110,957권으로 전국 평균 110,768권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하동군(198,089권) > 김해(175,838권) > 창원(172,275권) > 양산(142,262권) 순이며, 남해군(24,404권)이 가장 낮았고, 1관당 봉사인구수는 전국 42,747명에 비해 경남이 43,608명으로 다소 많았고, 지역별로 창원시(60,749명), 김해시(59,741명), 양산시(59,121명) 등의 1관당 봉사인구 수가 많아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의 추가 건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1.2 서점 및 출판사 현황

‘2022 서점편람(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22)’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서점은 총 2,528곳으로 2020년 2,320곳이었던 데 비해 208곳(0.9%)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남의 경우 2003년 228곳에서 2021년 141곳으로 87곳(-62%)의 서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서점이 없는 지역(시군구)은 총 7곳으로 이 중 경상남도 의령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점이 1곳 뿐인 지역은 총 29곳으로 이 중 경상남도 함안

군과 함양군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4〉 참조).

시도별 인구수와 서점 수를 비교해보면, 전국의 경우 서점 1곳에서 약 20,502명을 서비스하는 데 비해 경남지역은 서점 1곳당 약 23,688명을 서비스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서점 1곳당 서비스 인구수가 다소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남 18개 시군별 서점 수는 〈표 5〉와 같이 창원시(53곳, 39%)가 가장 많으며, 김해시(21곳, 15.4%), 진주시(16곳, 11.8%)로 나타났다.

한편 출판사 현황의 경우, 2021년 11월 23일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를 받은 출판사 중 해당 시점에 영업 중 상태의 출판사 수는 총 70,648곳으로, 그 중 경남지역은 1,351곳의 출판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지역 내에서는 창원시(494곳, 36.6%)에 출판사가 가장 많았고, 합천군(6곳, 0.4%)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3.2 경남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경남도민 독서실태조사는 본 연구에서 직접

〈표 4〉 전국 서점이 없거나 1곳 뿐인 지역

서점이 없는 지역(시군구)		서점이 1곳뿐인 지역(시군구)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정선군, 홍천군, 횡성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함양군
경상북도	군위군, 봉화군, 울릉군, 청송군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영양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신안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충청남도		전라북도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양군, 태안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총계	7곳	총계	29곳

※ 표 내용 출처: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16-17)

〈표 5〉 경상남도 시군별 서점 현황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합안군	함양군	합천군	계
서점수 (곳)	5	3	2	21	3	4	3	2	13	0	16	2	53	3	2	1	1	2	136
서점 분포율 (%)	3.7	2.2	1.5	15.4	2.2	2.9	2.2	1.5	9.6	0.0	11.8	1.5	39.0	2.2	1.5	0.7	0.7	1.5	100

※ 표 내용 출처: 전국서점조합연합회(2022)

〈표 6〉 경상남도 시군별 출판사 현황(2021년 기준)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합안군	함양군	합천군	계
출판사 수(곳)	61	26	15	174	31	35	38	16	85	7	245	8	494	43	30	14	23	6	1,351
출판사 분포율 (%)	4.5	1.9	1.1	12.9	2.3	2.6	2.8	1.2	6.3	0.5	18.1	0.6	36.6	3.2	2.2	1.0	1.7	0.4	100

※ 표 내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출판사 데이터(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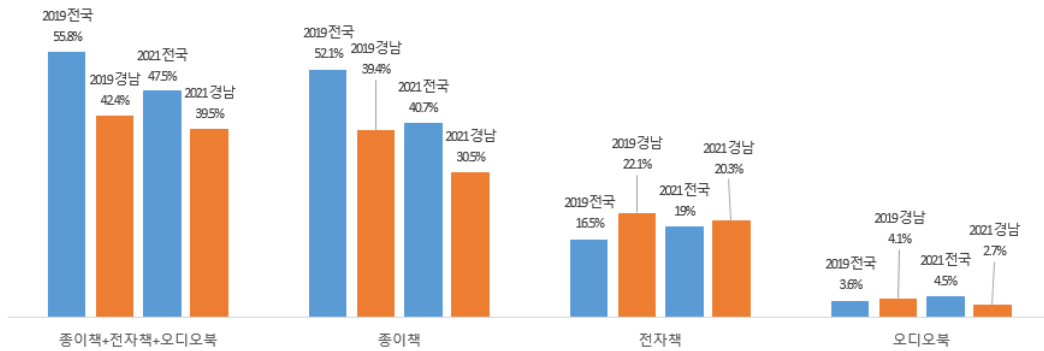
실시하지 않았고, 2019년과 2021년에 실시되었던 국민독서실태조사 중 경남도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별도 추출해 전국 평균과 비교·분석하였다. 응답자를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주요 응답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2.1 19세 이상 성인의 주요 응답 내용

전국과 경남지역 19세 이상 성인들이 1년 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연간 종합 독서율' 평균을 비교한 결과, 종이책의 평균 독서율은 전국보다 경남지역 평균이 10~20%p 낮게 나타났으나,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또한 1년 간 일반도서를 읽은 '연간 독서량'의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을 비교하면 모든 형태의 자료 유형에서 경남지역 평균 권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인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전국 평균(2019년 58.2%, 2021년 45.3%)에 비해 경남지역 응답자들의 응답 비율(2019년 86.6%, 2021년 62.5%)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의 상위 3순위 응답을 비교하면, 2019년은 전국과 경남지역 응답자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2021년은 전국과 경남지역 응답 순위가 동일하였다. 즉, 2019년 전국 응답자가 독서 장애요인으로 꼽은 상위 3순위는 ①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29.1%), ②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7.7%), ③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13.6%)였으나, 경남지역은 ①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8.4%), ②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24.3%), ③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2.1%)로 응답하였고, 2021년 전국 및 경남지역 응답자가 독서 장애요인으로 꼽은 상위 3순위는 ① 일



〈그림 1〉 2019년, 2021년 19세 이상 성인 연간 종합 독서율 비교(전국/경남)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전국 26.5% / 경남 24.9%), ②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전국 26.2% / 경남 23.8%), ③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전국 9.7% / 경남 13.2%)로 파악되었다.

독서 호감도의 경우, 2019년에는 전국은 보통(44.8%) > 싫어함(29.3%) > 좋아함(25.9%)으로, 경남지역은 싫어함(51.6%) > 보통(36.6%) > 좋아함(11.8%)으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으나 2021년에는 전국과 경남 모두 싫어함(전국 40.7% / 경남 53.0%) > 보통(전국 36.6% / 경남 34.4%) > 좋아함(전국 22.7% / 경남 12.6%)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이책 구입량은 전국은 2019년 평균 2.5권에서 2021년 1.9권으로 구입량이 줄었으나, 경남지역은 2019년과 2021년 모두 평균 1.4권으로 구입량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간 종이책 구입비는 전국은 2019년 평균 3.5만원에서 2021년 2.9만원으로 구입비가 줄었으나, 경남지역은 2019년 2.1만원에서 2021년 2.3만원으로 오히려 구입비가 다소 증가하였다.

19세 이상 성인들 중 직장인들에게 현재 직장에서의 독서 환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

시하도록 한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가 직장에 도서실이나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은 경남지역(2019년 97.9%, 2021년 92.4%)이 전국 평균(2019년 89.1%, 2021년 91%)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응답되어, 직원들의 자기계발이나 문화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직장 내 독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년 간 도서관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9년과 2021년 전국과 경남지역 모두 70-80%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경남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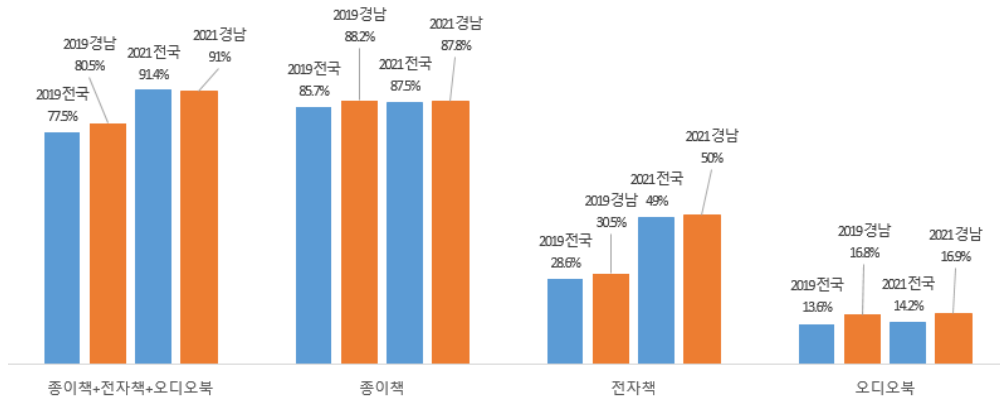
3.2.2 초·중·고등학생 주요 응답 내용

전국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지난 1년 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연간 종합 독서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종이책의 평균 독서율을 비롯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모두 전국 독서율 평균과 경남 평균이 비슷하거나 경남지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19세 이상 성인 응

〈표 7〉 전국과 경남지역 19세 이상 성인의 지난 1년간 도서관 이용 경험

(단위: %)

년도	구분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2019	전체(6,000)	23.9	76.1
	경남(384)	15.2	84.8
2021	전체(6,000)	16.9	83.1
	경남(383)	10.6	89.4



〈그림 2〉 2019년, 2021년 초·중·고등학생 연간 종합 독서율 비교(전국/경남)

답자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2〉 참조). 또한 초·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년 간 일반도서를 읽은 ‘연간 독서량’도 모든 형태의 자료 유형에서 경남지역 평균 권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인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2019년 48.8%, 2021년 41.1%)에 비해 경남지역 응답자들이 다소 낮은 것(2019년 45.6%, 2021년 38.7%)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경남지역 학생들이 성인 응답자들에 비해 독서율과 독서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의 상위 3순위 응답을 비교해보면, 성인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2019년

은 전국과 경남지역 응답자의 상위 3순위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2021년은 전국과 경남지역 응답자의 상위 3순위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9년 전국 응답자가 독서 장애요인으로 꼽은 상위 3순위는 ①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27.6%), ②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24.2%), ③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2.0%)였고, 경남지역은 ①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27.4%), ②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2.4%), ③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20.3%)였으나, 2021년 전국 및 경남지역 응답자가 독서 장애요인으로 꼽은 상위 3순위는 ①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전국 35.3% / 경남 33.2%), ②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전국 23.7% / 경남 25.8%), ③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전국 21.2% / 경남 22.1%)로 파악되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 호감도의 경우, 2019년에는 전국과 경남지역 모두 좋아함(전국 43.7% / 경남 41.3%) > 보통(전국 36.9% / 경남 37.8%) > 싫어함(전국 19.1% / 경남 20.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전국은 좋아함(40.0%) > 보통(37.2%) > 싫어함(22.8%)이었으나, 경남지역은 보통(43.6%) > 좋아함(38.8%) > 싫어함(17.6%)으로 응답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간 종이책 구입량은 전국은 2019년과 2021년 모두 4.3권으로 구입량이 동일하였으며, 경남지역은 2019년 2.8권에서 2021년 4.8권으로 구입량이 증가하였고, 연간 종이책 구입비의 경우 전국은 2019년 평균 3.7만원에서 2021년 5.2만원으로, 경남지역은 2019년 3.2만원에서 2021년 5.4만원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지난 1년 간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2019년과 2021년 전국(2019년 82.8%, 2021년 67.5%)과 경남지역(2019년 79.2%, 2021년 72.4%) 모두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고, 지난 1년 간 학교 밖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9년은 전국과 경남지역 모두 60%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21년에는 50% 이상 응답자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교에서 아침 독서 시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는 약 60% 이상이 없다고 응답(2019년 58.8%, 2021년 69.7%)했으나, 경남지역은 55% 이상이 있다고 응답(2019년 55.1%, 2021년 56.1%) 하였고, 아침 독서 시간이 있는 경우 1주일에 몇 회이며 1회 평균 몇 분 정도인지 질문한 결과, 전국 평균은 1주일에 4.7~4.8회에 평균 17.8~18.3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지역은 1주일에 4.1~5회에 평균 19.1~21.9분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 내 아침 독서활동은 경남지역이 전국 학교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학기 국어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국과 경남지역 모두 60-70% 학생들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참여자에 대해 독서한 장소와 독후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국과 경남지역 모두 학교 교실에서 읽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독후 활동으로는

<표 8> 전국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지난 1년간 학교 밖 도서관 이용 경험

(단위: %)

년도	구분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하지 않았다	무응답
2019	전체(3,126)	60.8	38.4	0.7
	경남(272)	63.8	36.2	0
2021	전체(3,320)	46	54	-
	경남(274)	45.3	54.7	-

글쓰기 활동이나 말하기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의 독서문화 실태조사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경남도민의 도서관 장서 이용률에 비해 장서수 및 인력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장서의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인력 충원이 요구된다. 관종별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경남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설치율과 운영 현황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위 수준에 속하지만,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의 수는 대체로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학교 수 대비 도서관 설치율은 100%에 가깝지만 1관당 장서수와 이용자 수,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대학도서관 역시 1관당 장서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10만권 정도 적고, 정규직 사서 수는 전국 대비 절반 수준이나 1관당 대출권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경남도민의 독서율에 비해 대비 장서 및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장서 보유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데 비해 방문자 수 및 대출권수가 평균보다 높아, 적극적인 이용 서비스를 위한 자료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경남지역 서점 감소 현상이 전국의 감소세에 비해 두드러지며, 서점 인프라가 빈약하므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경남 18개 시군별 서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서점 수가 -42% (1,061곳) 줄어든 데 비해 경남지역은 -62%(87

곳) 감소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지역 서점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전국에 서점이 없는 지역 7곳 중 경상남도 의령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점이 1곳뿐인 지역 29곳 중 경상남도 함안군과 함양군이 포함되어 있다. 서점 1곳당 서비스 대상 인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 경남지역의 경우 평균 3천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 내 도서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지식문화 인프라로서 서점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남도민 19세 이상 성인의 독서율 및 도서관 이용률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독서량'을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을 비교하면 모든 형태의 자료 유형에서 경남지역 평균 권수보다 낮으며, 본인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경남지역 응답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세 이상 성인들 중 직장인들에게 현재 직장에서의 독서 환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가 직장에 도서실이나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은 경남지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이나 직장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이용률에서도 2019년과 2021년 전국과 경남지역 모두 70-80%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경남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독서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이용률과 아침독서시간, <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율 등도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남교육감이 경남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4대 역점 정책 중의 하나로 '행복한 책읽기 문화조성'을 역점 과제로 삼아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4. 경남 독서문화진흥 사업성과 및 활성화 방안

4.1 독서문화진흥 사업 현황 및 성과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및 경남 지역의 2020년과 2021년 독서문화진흥예산, 독서문화진흥 사업 건수를 살펴보고, 독서문화 기본계획에 기초한 4개 전략별, 즉 ① 사회적 독서 활성화, ② 독서의 가치 공유, ③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④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의 추진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그 성과를 양적 지표로만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2020

년 독서문화진흥 관련 사업 결산액은 총 4,258억 원이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36.5%가 증가한 5,811억 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독서문화진흥 예산이 14억 여만 원에서 5억 여만 원으로 33.6% 감소하였는데, 세부 예산 항목 등을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독서문화진흥 사업추진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표 9> 참조).

지방자치단체별 독서문화진흥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경기(1,968억 원), 전남(453억 원), 경북(448억 원), 부산(4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편이다(경기대표도서관 건립 226억 원, 부천시 공공도서관 2개관 건립 491억 원, 김포시 공공도서관 3개관 건립 592억 원, 안산시 공공도서관 3개관 건립 272억 원, 남양주시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 190억 원 등).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은 독서문화진흥 예산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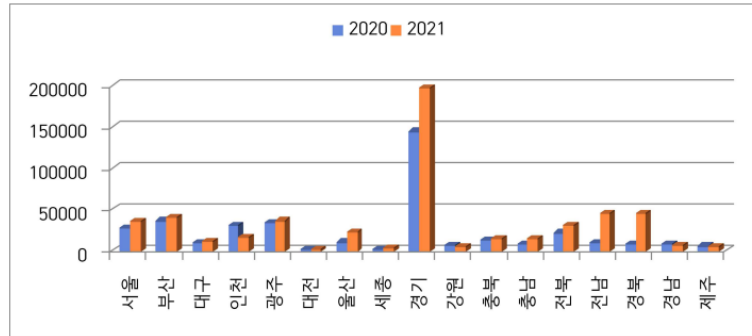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시행 건수는 2014년 3,728건, 2016년 4,417건, 2018년 4,534건, 2020년 5,688건으로

<표 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남의 독서문화진흥 예산

구분	2020년	2021년	비교(전년 대비)
중앙정부	534억 원	571억 원	6.9% 증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3,724억 원	5,240억 원	40.7% 증가
경남	14,460,906,200원	5,453,657,000원	62.3%(33.6% 감소)
계	4,258억 원	5,811억 원	36.5% 증가

※ 출처: 2021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독서문화진흥 추진실적(경남대표도서관, 2021)



〈그림 3〉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독서문화진흥 예산(2020/2021년)

증가 추세이며,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021년에는 6,388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전년 대비 12.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시행 사업을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4대 추진전략별로 보면 ‘사회적 독서 활성화’와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사업이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 가운데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사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2020년 지방자치단체별 독서문화진흥 사업 실적 건수는 경기(785건), 서울(718건), 경남(610건) 순이며, 2021년의 시행 계획 건수도 유사하게 경기(858건), 서울(841건), 경남(676건) 순이다. 대다수 지자체의 사업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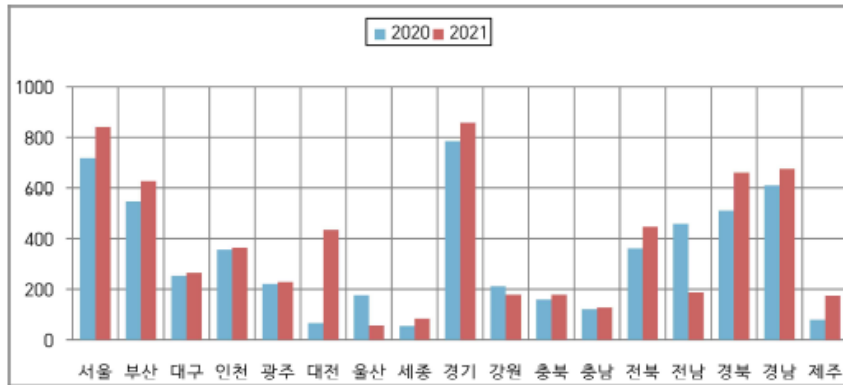
경남 18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은 2020년에 비해 1개관이 증가하여 2021년 76개소이며, 경남교육청 소속 25개소, 지자체 소속 48개관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그러나 아직 경남의 5개 기초단체인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없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경남 독서문화진흥 추진 실적을 비교해보면, 사업 실적은 2020년(82,805건)에 비해 2021년(89,199건) 사업이 더 증가하였지만, 관련 예산 편성은 2020년(8,212,950,000원)에 비해 2021년

〈표 10〉 연도별 전국 지자체의 사업 건수(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 구분)

제3차 기본계획(2019~2023) 추진전략 [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가율 (20년→21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사회적 독서 활성화	2,206	45.3%	2,517	44.2%	2,710	42.4%	7.7%
2.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836	17.2%	987	17.4%	1,019	16.0%	3.2%
3.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1,745	35.8%	2,034	35.8%	2,506	39.2%	23.2%
4.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84	1.7%	150	2.6%	153	2.4%	2.0%
전 체	4,871	100%	5,688	100%	6,388	100%	-



※ 사업 건수는 지자체별로 사업별(사업 단위 및 크기)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4〉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독서문화진흥 사업 건수(2020/2021년)

〈표 11〉 경상남도 운영 주체별 공공도서관 개소 현황(2020~2021)

구분	2020	2021
지자체	47	48
교육청	27	27
사립	1	1
계	75	76

(5,453,657,000원)에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변동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추진 실적만 놓고 볼 때,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첫해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개관한 날보다 폐관한 일수가 더 많았으며, 이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 준비 또한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2년차인 2021년에는 개관일수도 2020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사업 개발 및 활성화로 예산 대비 사업 추진 실적이 증가하였다.

경남지역의 2021년도 독서문화진흥 추진 실적을 전략별로 살펴보면, '전략1. 사회적 독서활성화'(39.56%), '전략3. 독서복지 실현'(31.14%), '전략4.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22.68%), '전략

2. 독서 가치 공유 확산'(6.6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2021년도에 사업 추진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전략은 '전략4.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으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각 도서관들의 대면 사업들이 제한되면서, 폐관 기간 중 미래 디지털 독서생태계를 조성하는 관련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년에 가장 추진 실적이 저조했던 '독서 가치 공유 확산' 관련 사업의 경우, 앞으로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독서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파악된 국민들의 독서율 감소와 낮은 독서 호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관련 사업 추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략3. 포

용적 독서복지 실현'을 제외한 전략 1, 2, 4에 해당하는 사업들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지자체 소속 도서관보다 2배 이상 추진 실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경남에 지자체 소속 도서관(48개관)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27개관)에 비해 도서관 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역사, 인력, 장서 보유 측면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지자체 소속 도서관보다 2~3배 정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에 맞게 교육 본질 중심의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행복학교 운영, 독서 교육 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이라는 독서문화진흥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을 위한 행복한 책읽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노후되었던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주민친화적인 도서관 시설을 갖추려는 노력도 반영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들도 소속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예산 및 인력 배치 등을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 도내 지자체와 경남교육청은 대상별로 독서문화진흥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 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에 비해 '전략3, 포용적 독서 복지 실현'의 추진 실적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소외 계층별(노인, 병영, 교도소, 다문화, 직장인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매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광역 단위 도서관인 경남대표도서관은 '전략2, 독서의 가치공유 확산'에 대한 실적이 2년간 전무하기에, 이에 대한 경남 도 단위 차원의 독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4.2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활성화 방안 제안

앞서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남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주요 분야별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의 문제로 서면 방식으로 대체하였고, 연구자가 각 전문가들에게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1) 인터뷰 방법: 서면과 전화 인터뷰(발송 및 회신, 이메일)
- (2) 인터뷰 기간: 2022. 6. 10(금) ~ 2022. 06. 16(목)
- (3) 대상 분야별 전문가 10명(명단 생략, <표 12> 참조)
- (4) 인터뷰 질문 내용 및 참고자료(<표 13> 참조)

독서문화진흥 관련 분야 전문가로는 경남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입안하는 경남도의원, 지자체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창원시 문화예술정책관, 경남지역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경

남대표도서관 독서문화진흥 담당팀장, 경남교육청 독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장학사, 지자체 독서문화진흥 관련 담당 업무 유경험자 김해시립도서관장, 서점운영자, 대학 및 학교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업무 담당자, 독서소외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경남 유일 전자정보도서관 사서와 다문화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소속과 경력 등 특징은 다음 <표 12>와 같다. 질문 내용은 세 가지 범주 7개 질문으로 구성

하였으며(<표 13> 참조), 각 질문별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종합·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Q1)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상남도만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과 계층,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차별 없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독서 생태계 조성이 경남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는 의견(C, E 답변)과 함께,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마을도서관 형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독서문화가 일찍부터 추진되어왔던 지

<표 12> 경남지역 독서문화진흥 관련 분야별 전문가 특징

연번	지역전문가	소속기관 유형	대상자 특징
1	A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창원시 3개 평생학습센터 및 마을도서관 운영위원
2	B	창원시 문화예술정책관	사서, 창원시 문화정책 기획 및 시행
3	C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진흥 담당 장학사
4	D	그랜드문고	지역서점 운영, 전 창원시서점조합장
5	E	경남대표도서관	대표도서관 독서문화진흥 담당팀장
6	F	김해시립도서관	관장 (사서), 김해시 책의 수도 실행
7	G	경남대학교 도서관	부관장 (사서), 전 작은도서관 관장 역임
8	H	고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국어교사
9	I	경남전자정보도서관	사서, 과장
10	J	다문화인권교육단체 모자이크 프로젝트	대표, 독서교육 전문가, 작은도서관 관장

<표 13> 전문가 인터뷰 질문 내용

범주	질문 내용
경남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현황	Q1. 경상남도 정체성과 관련 타 도와 차별화된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 기존 경남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에 비추어 경남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경남 독서문화진흥 사업 진단 및 요구사항	Q3. 현재까지 참여해 보신 경남(또는 현재 재직 중인 곳) 독서문화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 및 유지/계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4. 현재 경남 독서문화사업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5. 독서문화사업 중 가장 차별화되어야 할 부분과 특화 전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독서문화진흥 사업방향 및 과제	Q6. 향후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융합시대 대비 지향해 나가야 할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 방향은 어떠해야 하며 중점적인 추진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7. 이상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경남의 독서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추진사업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역이라는 의견(G답변)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민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별·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청 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별로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Q2) 기존 추진된 경남 독서문화진흥 정책 및 관련 사업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용자 생애주기별로 보았을 때 영유아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 성인 이용자들에 대한 독서관련 지표가 점차 나빠지는데 비해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각 도서관별(대표도서관, 지자체별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등)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재조정해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강화(G답변)하는 한편 지역별 독서관련 기관 간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B, E답변) 또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경상남도 독서문화정책을 이끌어 갈 중심점이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정책과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G답변)

Q3) 기존에 참여했던 경남 독서문화 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 및 앞으로 유지·계승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민동락카드(도서구입비지원카드)(D답변), 북콘서트, 독서문화기행, 작가와의 만남 등 이용자 수요에 맞춰 추진되는 독서 이벤트 및 행

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답변이 있었으며(A, C, E, F답변), 이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은 독서동아리 지원,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소양교육,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교사 독서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다문화 및 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등이 꼽혔다.(H, I, J답변) 이외에도 특정 행사나 프로그램보다도 도서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도민 친화적 독서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G답변)도 제시되었다.

Q4) 현재 경남 독서문화사업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통적인 독서의 가치가 낮아지고 독서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 빠른 조사 연구와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E답변), 독서문화진흥사업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이 미비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독서문화진흥사업성과의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시민 참여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F답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의견들과 마찬가지로 대표도서관과 거점 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작은도서관 간의 유기적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며 그 외 독서문화진흥 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연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중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I답변)은 미약하지만 개설이 되고 있으나, 다문화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J답변)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도서관별로 해당 지역 이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Q5) 독서문화사업 중 차별화되어야 할 부분과 특화 전략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현장의 실태와 도서관별 특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독서문화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독서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E답변), 도서관 이용이 단순히 자료 이용을 위한 물리적 방문 및 지식 소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지식의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문화 공간 마련과 함께 평생 학습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대상별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G답변)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콘텐츠 이용이 활발한 미래 세대들의 요구를 반영해 모바일 독서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H답변)는 의견도 있었다.

Q6) 향후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융합시대에 대비해 지향해야 할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성 있는 지식정보 활용을 통해 각자 사회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C답변), 코로나 19로 촉발된 각종 비대면 독서 서비스 구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E답변)

Q7) 마지막으로 경남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추진 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내용으로는, 지역 독서문화진흥은 단순히 공공도서관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관심과 행정 관계 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

께 (E답변), 스마트 기기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문해력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독서력 증진'이 기반이 되어야 독서문화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H답변). 이 외에도 장애인 등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남지역 도서관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며(I답변), 다양한 형태의 독서동아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육성 정책이 요구되고(G답변), 지역서점 활성화와 도서관 연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해 경남도민들이 책과 독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D답변)도 있었다.

4.3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

전국 및 경남의 독서실태조사 결과와 독서문화진흥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그리고 2020~2021년 경남 독서문화 추진 실적(경남 대표도서관)과 앞서 추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경남의 독서문화진흥이 다소 미진한 이유로 경남지역 독서문화진흥사업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이 미비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독서문화진흥 사업성과의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시민 참여의 저조로 드러난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남대표도서관과 거점 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작은도서관 간의 유기적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며 그 외 독

서문화진흥 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연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독서문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독서유관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경남 독서문화진흥 민·관 협력체제(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둘째, 전문가 의견들에서 지적된 독서문화진흥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을 위한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문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한다. 이의 법적 근거로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경남대표도서관)에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독서문화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속적으로 독서율 저하와 도서관과 서점 등의 인프라 이용과 장서량과 인력 등의 부족 현상 현황과 전문가 의견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을 종합 반영하여 독서문화 유관기관 간의 민·관 협의체(거버넌스)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 등에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비독자 요구를 조사해 독자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며, 각 도서관이 보유한 주제별로 특화 장서를 구성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마다 특색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독서문화 추진성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남대표도서관과 경남교육청 간

에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계층별·관종별 서비스 대상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전략 2.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과 취약계층 및 독서소외 지역 독서복지 강화, 병영문화 만들기, 교정시설 독서 프로그램 지원, 책 읽는 대학 및 책 읽는 일터 조성, 독서가치 및 독자개발 연구, 독서요인 및 독서실태조사 등의 보완을 통해 독서문화진흥 활성화를 꾀한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남대표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독서문화 관련 조사·연구를 정례화해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고, 18개 시군 지자체 도서관에서는 성인(노인 포함) 및 소외계층(다문화, 장애인, 병영, 교도소 등)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 및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 등에 좀 더 주력한다. 한편 경남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생활화 기반 조성 과 가정과 학교 및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 초·중기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주력하고, 그 외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 및 인문학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문 독서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

여섯째, 조례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년 독서문화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과 예산 편성, 독서문화 인프라 조성(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조성, 서점 활성화 방안, 독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도지사, 시장, 군수 및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와 협력하고 지원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의 주요 수행 내용 및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 제정 현황으로, 전국에는 2021년 8월 현재 226개 지자체 중 107개(47%) 지자체가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남에는 2022년 5월 현재 광역인 경상남도를 포함 18개 시군 중 7개도 및 시군(36.8%)에 조례(경상남도, 거창군,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함안군)가 제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 47%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조례 제정 비율이다.

둘째, 경상남도 독서 인프라를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경남 도내 도서관 현황에 대해 전국과 경남, 그리고 경남 도내에 18개 시군별로 비교한 결과 경남은 공공도서관 설치율과 장서(인쇄자료) 수는 상위 3위이며, 공공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1관당 대출도서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설치율이 상위이기에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남 18개 시군별 서점과 출판사를 조사한 결과, 서점 수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서점 수가 감소한 비율(42%)에 비해 경남은 62%로 전국 서점 감소율보다 약 20% 더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서점이 없는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에 총 7곳이 있는데 그 중 경남 의령군이 포함되며, 서점이 1곳 뿐인 기초 지자체도 총 29곳이 있는데 이중 경남에는 함안군과 함양군이 포함되어 있다. 경남의 출판사는 행안부에 등록되고 영업 중인

출판사는 1,341곳(1.9%)이며, 경남에서 출판사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494곳, 36.6%)이며, 가장 적은 곳은 합천군(6곳, 0.4%)이다. 또한 2019년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 중 경남의 데이터만 활용하여 경남도민의 독서실태를 파악하였는데, 경남지역 성인 응답자들은 대체로 '스스로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독서 호감도도 '싫어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직장 내 독서 환경이 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인 것으로 파악되어 독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서 환경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생 응답자들의 독서 호감도는 '보통'이나 '좋아함'의 응답이 많았고, 전국 평균에 비해 독서율도 높은 편이며 학교에서의 아침 독서 시간 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별로 보았을 때 성인으로 성장할수록 독서 관련 지표가 하락해 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사업성과에 대해 경남 75-76개 공공도서관의 연도별(2020-2021년)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4대 과제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경남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독서문화 환경의 주요 지표(도서관 현황,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점 및 출판사 현황)를 정리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서면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경남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총 6가지로, ① 경남 독서문화진흥 거버넌스 구축, ② 경남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및 독서문화진흥 수립·시행 등의 평가 역할 근거 마련, ③ 거버넌스를 통한 각계각층의 정기

적인 의견 수렴 조사에 근거한 독자 요구에 의거해 지역별 특성화된 장서 구성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마련, ④ 경남대표도서관과 경남교육청 간 서비스 대상 및 역할 분담 체계화, ⑤ 경남대표도서관과 18개 시군 지자체 도서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화, ⑥ 경남 및 18개 시군 지자체들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근거 마련 및 관련 법제에 기반한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5.2 제언

본 연구는 경남지역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실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독서실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와 2021년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전국과 경남지역 현황을 비교하였기에 경남도민의 실제 현황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경상남도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사업성공과를 양적 지표로만 분석하고, 사업

영역별 구체적인 사업성과와 사업별 만족도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의 제한점이며 후속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경상남도 및 지자체에 제정된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는 조사하였으나 경남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까지는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해, 향후 독서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시 참조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경상남도과 규모가 유사한 타 지역의 독서문화 관련 조례의 내용과 비교·검토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과 보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후속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평가해 2022년 이후 5개년 독서문화진흥 중장기 발전 계획의 내용들을 도출하기에는 연구 기간 및 시점이 맞지 않아 중장기 발전 방안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 또한, 독서실태 조사 및 제3차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남대표도서관 (2021). 2021년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추진실적. 경남대표도서관 내부자료.
 김보일 (202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27-5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1.027>

- 김정숙 (2015). 한국 독서정책의 현황과 방향. 한국출판학연구, 41(1), 5-22.
-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8764호.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2013).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a).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b).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3, 1. 1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
- 박인기 (2014). 독서정책의 방향과 과제-독서의 사회·문화적 작용과 정책화. 독서연구, 31, 9-40.
- 법제처 (2022, 5. 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송정숙, 김수경 (2012). 부산광역시 독서소외계층 독서문화진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89-111. <https://dx.doi.org/10.16981/kliss.43.4.201212.89>
- 안인자 (2012). 도서관을 통한 장애인 독서문화 확산 및 활성화 방안. 정보관리연구, 43(1), 187-212. <https://dx.doi.org/10.1633/JIM.2012.43.1.187>
- 정일권, 조운경, 채영길 (2014). 국내외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169-190. <https://dx.doi.org/10.16981/kliss.45.3.201409.169>
- 차성중, 강지혜, 배경재 (201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실증적 평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273-303. <https://dx.doi.org/10.16981/kliss.50.4.201912.273>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22, 5. 10). 2022 한국 서점 편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출처: <http://www.kfoba.or.kr/promote/handbook>
- 행정안전부 (2021, 11. 23) 행정안전부-출판사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출처: <https://www.data.go.kr/>
- 황금숙, 김수경, 장지숙 (2011).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277-308. <https://dx.doi.org/10.4275/KSLIS.2011.45.2.277>
- 황금숙, 서우석, 백원근, 이연옥, 김은실 (2016).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89-314. <https://dx.doi.org/10.16981/kliss.47.201609.28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2012). Improving strategy of reading culture for printed disabled people in the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3(1), 187-212.

- <https://dx.doi.org/10.1633/JIM.2012.43.1.187>
- Cha, Sung-Jong, Kang, Ji Hei, & Bae, Kyung-Jae (2019). An empirical study on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ject of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273-303.
<https://dx.doi.org/10.16981/kliss.50.201912.273>
- Gyeongnamdaepyo Library (2021). 2021 Performance of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in Gyeongsangnam-do. Internal Documents of Gyeongnamdaepyo Library.
- Hoang, Gum-Sook, Kim, Soo-Kyoung, & Jang, Ji-Suk (2011). A study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for children & young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277-308. <https://dx.doi.org/10.4275/KSLIS.2011.45.2.277>
- Hoang, Gum-Sook, Seo, Woo-Seok, Back, Wuen-Keun, Lee, Yoen-Ok, & Kim, Eun-Sil (2016).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289-314.
<https://dx.doi.org/10.16981/kliss.47.201609.289>
- Jeong, Irkwon, Cho, Yun-Kyoung, & Chae, Young-Gil (2014). A research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policy for reading promo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169-190. <https://dx.doi.org/10.16981/kliss.45.3.201409.169>
- Kim, Bo il (2023). A study on library use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ies reflecting lo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7-5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1.027>
- Kim, Jeong Suk (2015).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and directional proposals of korean reading policy.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41(1), 5-22.
- Korea Federation of Bookstore Association (2022). 2022 Bookstore Handbook. Available: <http://www.kfoba.or.kr/promote/handbook>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1st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2009~2013).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2nd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2014~2018).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3rd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2019~2023).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2019 National Reading Surve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a).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b). Annual report on reading promotion.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1. 18).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5. 22).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 .
-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21. 11. 23)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Data of Publisher.
Public Data Portal. Available: <https://www.data.go.kr/>
- Park, In-Gee (2014). Direction and task of reading policy-socilcultural effect of reading and
it's employing polic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1, 9-40.
-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Act No. 18764.
- Song, Jung-Sook & Kim, Soo-Kyoung (2012). A study on the status and ways to improvement
directions of reading culture promotion for reading disabl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89-111.
<https://dx.doi.org/10.16981/kliss.43.4.201212.89>